

김하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희망 청도 건설

임신·출산·양육 등 저출산 대책
700억원 이상 재정 전폭 투입



김하수 청도군수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희망 청도 건설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일 정도로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탓이다.

김 군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 민관이 함께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저출생 극복 TF단을 구성, 민관 협의 및 TF단 회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 기본전략 주가일자리 등 4대 분야와 인식개선 운동

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현재 세대공존형 매입주택 조성, 청도형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23개 과제를 발굴, 2025년까지 700억원 이상 재정을 전폭 투입한다.

경북 첫 소아청소년과를 보건소 내에 운영 중이다.

이곳에 △건소 외래산부인과 △지역특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도 추진 중이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청년가구 월 최대 1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주택 매입·전세자금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 대출이자 2%, 최대 300만원을 4년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

두 사업 모두 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준과 혜택 확대를 위해 청도군에서 자체 추진한다.

군은 △출산지원금(첫째아 370만원, 둘째아 1340만원, 셋째아 이상 1,540만원)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농가 영농도움미 지원(최대 640만원) △신생아 및 입양 영아 건강보험료(최대 180만원)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1인 최대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진행 중이다. 조여은 기자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2024 KB금융 한국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후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창단 1년만에 국가대표

‘2024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우승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 기대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창단 1년만에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은 지난 9~17일까지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치러진 '2024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서 강원도청을 꺾고 우승하며 남자 컬링 국가대표에 뽑혔다.

의성군청팀은 스킵 이재범, 서드 김효준, 세컨 표정민, 리드 김은빈, 핏스 김진훈, 지도자 이동건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에서 예선은 4승 2패를 기록하

며 3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페이지 게임에서 서울시청을 8-3으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 경북체육회(제2회)의성군수배 우승팀을 8-7로 승리했다.

결승전에서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인 강원도청(현 국가대표)을 10-5로 꺾고 우승했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2024~2025 남자 컬링 국가대표 자격이 주어진다.

의성군청 선수들은 4월29일부터 지난 달 초까지 열린 '제2회 의성군수배 전국

컬링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부터는 격주간 2회 전지훈련을 통해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아이스 적응력을 높이는 등 팀워크 훈련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팀 관계자는 “팀워크 훈련을 꾸준히 한 것이 우승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 있을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024~2025 남자 컬링 국가대표 자격을 쟁취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의성군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도민 '혈세' 적정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결산심사 최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20일 이틀간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번 심사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4215억6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5962억3500만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8253억3100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 5296억69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7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8억8900만원이다.

경북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3847억4200만원이다.

세출 결산액이 5조6036억1800만원이다. 김성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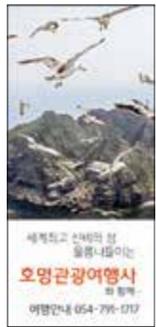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7811억25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726억3100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1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7700만원이다.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그 과정과 실적을 꼼꼼히 살펴본다.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부 재정 운용에 반영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한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해 앞으로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 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는다.



▶ 단재장일정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19일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열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개청식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9일 오후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달성시니어클럽 카페비슬에 4호점 개소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 의회! 의성군의의회!

군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군민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2

동구청, 청림 동아리와 함께하는 캠페인

동구청은 18일, 구청 현관에서 '출근길 직원맞이 청림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청림 문화 확산 방안 및 홍보 등 창의적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청림 학습동아리 '청학동' 회원들과 함께 '더 청림한 동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청림 구호를 외치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림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림 캠페인에 참여한 조문정 청림 동아리 회장은 "우리 스스로 청림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조직 내 청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림 동아리 회원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인맥보다 치맥! 치맥의 성지 대구로 모여라!

여름엔 치맥의 도시 대구로!
7월3일부터 두류공원 일원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한여름 밤의 축제가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여름 축제로 돌아와 'It's Summer! Let's CHIMAC'이라는 슬로건으로 7월 3일(수)부터 7월 7일(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두류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돌아온 만큼 무더위를 잊게, 축제 열기는 더욱 뜨겁게 만들어 줄 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로 가득 채워 관람객들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치맥 유니버스(New+Universe)'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치맥의 성지라는 정체성을 확보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85개 업체가 참가해 224개 부스를 차렸고 방문객은 100만 명이 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천200여 개 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5년 연속 뽑혔고, 이제는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에 따르면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축제 재방문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 1위로 평가됐다. 그 비결은 뭉치 뭉치해도 역시 치맥페스티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공간별 콘셉트와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우선 치맥페스티벌의 메인 무대라 할 수 있는 2.28 자유광장은 '트로피컬 치맥클럽'을 콘셉트로 꾸며진다.

또한 잔디광장 전면부에 설치된 무대 위치도 중

앙으로 옮겨 잔디광장과 피크닉 광장 양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스테이지'로 무대를 구성해 공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어디서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다.

이번 무대 위치 조정으로 축제장 인근 소음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스탠드 객석 800석을 신규로 확보해 식음 공간이 대폭 넓어진다.

2년 연속 매진 행렬을 이어간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좌석과 함께 혜택까지 늘린다. 기존 960석에서 올해에는 1천500석으로 늘리고 트로피컬 연출로 공간을 차별화하며 비가 오더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천막 등을 제공한다. 테이블당 치맥 세트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치맥페스티벌만의 '특별 소스'와 대구로 치킨 할인권 등 혜택도 주어진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 사전예약 티켓 오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치맥페스티벌이 7월의 여름축제로 돌아오면서 2.28 주차장에는 시원하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아이스 수영장 식음존이 '하와이안 아이스팝'으로 다시 부활한다. 열기와 비를 막을 수 있는 TFS 텐트로 공간을 조성했고, 실린팬과 공조 순환구를 설치해 쾌적한 공간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다.

코오롱 아외음악당은 '치맥 섹스 가든'으로 꾸며진다. 빛 조명으로 어느 곳에서든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조성될 계획이다.

치맥페스티벌 콘텐츠 중 관람객 만족도 1위에 빛나는 '레트로의 성지' 관광정보센터 주변 공간은 '치맥 핫섬머 디스코 포차'로 업그레이드된다. 디스코 포차를 콘셉트로 7080 라이브 카페로 꾸며 고고장 댄스 플로어도 설치한다. 두류공원 일대를 오가는 거리에는 '스트리트 치맥팝'을 차려 스탠딩 식음존이 개설된다.

치맥페스티벌의 얼굴인 축제장 입구도 확 바뀐다. 그동안 축제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교통



통제 펜스 및 시설물이 적치되면서 입구 분연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입구부터 축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축제 웰컴 안내소'를 신설하고,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유희공간에 식음 테이블 좌석도 마련한다.

또한 올해 치맥페스티벌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합함부터 트로트, 록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을 초청할 계획이다. 메인 무대뿐만 아니라 각 축제장 콘셉트에 맞는 뮤지션을 초청해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와 연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대구로' 앱을 통한 픽업 주문을 활용할 경우, 무더위 속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치킨을 주문·수령할 수 있다.

특히 치맥프리미엄 라운지를 예약한 관람객

에게는 픽업 주문 1만 원 할인쿠폰, 일반 관람객에게는 5천 원 할인쿠폰을 지원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이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며, 대구로 택시와 연계해 축제장에서 나와 기다릴 필요 없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택시 승강장을 신설해 관람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글로벌 축제 위상에 맞게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도 눈길을 끈다. 메인 무대가 있는 잔디광장에 '글로벌 예약 식음존'을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치맥페스티벌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시아권 대형 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객 대상 상품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 이용권과 치킨+맥주+특별 소스 패키지, 이월드 할인권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전국 곳곳에서 찾아오는 축제 참가자들이 더욱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KTX 연계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KTX 주중 50%, 주말 30% 할인과 더불어 치맥페스티벌 1만 원 쿠폰까지 포함되는 연계 상품의 상세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난해 대구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축제에 참가하는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시 여름 축제로 돌아온 치맥페스티벌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무더위를 잊은 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2024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폭언·폭행 out, 달성군 악성민원 강력 대응...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달성군은 지난 17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신규공무원과 민원응대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달성군의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특이민원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관계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달성군은 군청과 읍면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 공간 제공 및 힐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방치된 노후간판 철거 완료

대구, 과학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7년까지

중구청은 "주인 없는 폐업 간판 무상철거 사업"을 1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은 업소 이전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간판이다.

구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300여개의 간판을

철거했으며, 올해는 3월부터 4월까지 철거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5월부터 이달 14일까지 32개 간판을 철거했다.

구에서는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 데는 대구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지부장 이환수)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철거 대상으로 분류된 간판이 걸린 건물 외벽의 건물주를 찾아 신청을 독려하고 관내 구석 구석에 방치되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간판들을 대거 발굴해 이번 정비사업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국제교류도시 해외취업 및 해외연수자 초청 간담회'

지역 청년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수성구는 지난 17일 수성구청 소회의실에서 '수성구-국제교류도시 해외취업 및 해외연수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서 근무할 예정인 지역 청년 5명, 독일 카를스루에시 여름 연수에 참가하는 대학생 1명을 초청해 진행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미래 포부를 듣는 등 30분가량 환담을 나눴다.

다음 달부터 간사이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전

민지 씨는 "어릴 때부터 일본문화에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었다"며 "일련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임원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준 수성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독일 해외연수에 선발된 김나연 씨는 "수성구를 대표해 우호도시인 독일 카를스루에시 시청에서 연수를 하게 돼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그곳에서 수성구를 널리 알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수성구가 추진하는 청년 해외 취업,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국제 교류도시와의 상호협력력을 토대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지역 청년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청년 실업 해소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먼저 수성구는 우호도시인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시노시에 소재한 간사이 국제공항에 지역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일 산학관 협업을 통해 해외 취업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해 4명의 청년이 추가로 합격했다. 이 중 취업비자를 획득한 2명은 6월 말에 출국해 현지 근무를 시작하며 나머지 졸업 예정자 2명은 오는 가을 취업비자 신청 수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카를스루에시와의 꾸준한 교류 성과로 지역 대학생이 독일 카를스루에시 시청에서 근무하며 견문을 넓히고 국제 경험을 쌓는 연수 기회를 마련했다.

수성구는 지난달 심사를 거쳐 지역 대학생 2명을 해외연수자로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카를스루에시에서 연수하며, 연수 기간 카를스루에시로부터 숙박비·식비 전액과 함께 소정의 체제비를 제공한다. 수성구 외 프랑스 낭시, 영국 노팅엄 등 세계 각지의 대학생이 참여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앞으로도 국제 교류도시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 청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구지역 본선대회, 군위高 참가

군위고 학생 본선 9명 진출, 단체 인기상 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13일 대구북학사포츠타운시민체육관에서 '2024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구지역 본선대회'에 참가했다.

통일골든벨은 청소년들에게 다소 멀고 딱딱

하게 느껴지는 안보문제, 역사문제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대구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 역사관 함양으로 통일미래세대 육성과 비전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자체 선발된 군위고등학생 17

명이 군위대표로 참가했다. 대구 11개학교에서 선발된 22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벌였다.

예선이 끝난 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본선에 군위고 학생 9명이 올라갔으며, 주어지는 골든벨 모자와 함께 북한에 관한 상식뿐만 아니라 통일, 역사, 문화제, 대한민국 대북정책 기초와 활동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아쉽게도 군위고는 수상자에 선발이 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행사를 즐겁게 즐겨 단체로 인기상을 수여하는 쾌거를 만끽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69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6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과 053-267-5000 광고과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85

부사장 053-254-0600 기획조정실 053-257-0000 사회부 053-253-0000 자정부 053-253-0084

편집국장 053-257-0300 임원실 053-257-0700 행정부 053-253-0081 편집부 053-253-0083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료에 광고 및 그 실행요금을 추가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3

칠곡군, 토리호이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칠곡보건소는 지난 15,16일(양일간) 칠곡군 관내 임부 및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숲태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칠곡군보건소와 국립칠곡숲체원이 함께 연계해 숲 산책, 공예, 부부 얼굴 그리기 및 요가 등 활동을 하면서 태아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예비부모

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비오는 숲이 운치있었고 건강한 태교가 되는 기분이었다", "참여 임산부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돼 더욱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포항시,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코스트코 유치 총력

경북 첫 코스트코 반드시 포항에 이강덕 포항시장, 유치 적극 나서

경북 최초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 포항시가 코스트코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포항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포항시청을 방문한 코스트코 코리아 부사장 일행을 만나 유치조건과 입점 여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포항이 가진 강점을 적극 설명하며 코스트코 포항 입점을 위한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에는 포항점 유치 가능성 판단을 위해 이례적으로 코스트코 대표이사 일행이 직접 포항을 방문했다.

당시에도 이강덕 시장은 직접 나서 포항시의 지리적 위치 관계와 경제 상황, 미래산업 발전 현황을 설명하는 등 포항의 성장 잠재력과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코스트코 측은 포항 입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약속, 이번 실무진의 방문은 포항을 입점 후보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5월 이강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창고형

대형마트까지 지역내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을 위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모공원과 연계해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스트코 포항점 유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코스트코는 전세계 14개국 871개 매장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유통업체다.

입점 시 방문 인구 유인 및 인근지역 소비 유인 등 경제유발 효과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장당 근로자 수는 300여 명으로 근로자 상당수가 40~50대 여성이다.

대부분 정규직으로 보수체계와 복지후생도

뛰어나 여성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어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시는 10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향후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 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점포의 필요성과 입점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반 대형 할인 점포의 경우 5만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는 반면 코스트코는 3800여 개로 판매 상품을 한정해 대량판매를 하고 있다.

지역 내 입점 시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의 도매유통센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두호롯데마트의 경우 전통시장 상권 내에 위치해 입점이 불가했지만 코스트코의 경우 인접 시군까지 아우르는 외곽지 입점을 선호하고 있다.

추모공원 예정지 등 시 외곽지에 입점하게 될 경우 골목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도 현재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기 "동해안 거점도시인 포항에 코스트코를 반드시 유치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상주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대상



예천군 농식품 수출평가 우수상

상주시, 5000만원 예천군, 1000만원 받았다

2024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상주시 '대상' 예천군 '우수' 상주 농산물수출 선두 주자 예천 해외시장 집중적 공략

경북도가 마련한 '2024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에서 상주시가 대상을 받았다.

예천군은 우수상을 거머쥘었다.

평가는 경북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감률, 신시장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관심도를 반영했다.

■상주시 대상

시는 '2024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다.

시는 전년도 수출액 362억원(4228톤)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포도 222억 △배 108억 △곶감, 복숭아, 딸기, 쌀 등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해외 32개국에 수출했다.

평가에서 품목별 수출단지 23개소를 관리하

는 안정된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개척 노력 그리고 해외홍보관 운영 등 차별화된 수출정책이 한몫했다.

무엇보다 수출 확대에 급변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기 속에 우수한 농식품 수출 실적 및 신시장개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8~2022년까지 5년 연속 받아왔던 대상 수상을 올해 다시 대상을 받아 명실상부한 농산물 수출선도 지자체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산물 수출의 스타 품목인 딸기 전문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농업의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성원 부시장은 "수출에 힘쓰는 생산자 단체 및 수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상주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농산물 수출의 선두 주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국내외 해외바이어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예천군 우수상

예천군은 '2024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1000만원

을 확보했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달성도,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수출정책 참여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그동안 우수한 농·특산물을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해외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수출액이 25.8% 증가한 2641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수출 정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경기 둔화로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와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수출 확대에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송명주 기자 이경호 기자

고추 바이러스 매개충 진딧물 총채벌레 밀도 높아!

농기원, 경북작황조사 결과 총채벌레 발생비율 60.0% 평년대비 6.8% 증가 했다



사진은 고추 바이러스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 북부지역 고추 주산지 생육 초기 작황 조사 결과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발생이 평년대비 증가해 방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 3.4일 영양을 비롯한 안동, 봉화, 청송, 의성, 예천 등 6개 지역 210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딧물의 발생비율*은 61.2%로 평년대비 16.9% 증가함에 따라 CMV(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PepMoV(고추모틀바이러스) 등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병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총채벌레의 발생비율은 60.0%로 평년대비 6.8% 증가했다.

총채벌레에 의해 매개되는 TSWV(갈라병,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발생비율 또한 7.7%로 평년대비 3.0% 증가했다.

해충 밀도 증가는 경북 북부지역의 4월~5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1.4℃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상청 전망에서 6월~7월 기온도 평년대비보다 높아 지속적인 매개충과 바이러스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이 시기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효과적인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진딧물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전용약제(작용기작 9번, 9d번, 23번, 29번 등)를 10일 간격으로 7월 상순까지 살포해야 한다.

총채벌레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전용약제(작용기작 5번, 13번, 30번 등)를 10일 간격으로 7월 중순까지 살포해야 한다.

꽃 안에 약제가 묻을 수 있도록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관찰될 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나 영양고추연구소에 문의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감염이 확인된 고추는 뽑아서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해충 발생 밀도가 높아져 바이러스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기방제를 통해 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용통 기자

경북교육청 디지털 전환 성과 교육부 인정...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전국 확대 검토

경북교육청은 현재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 교육부가 이를 전국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기존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종이 출력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 학교지원센터와 협력,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많은 양의 종이 출력물 동의서를 일일이 취합하고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로서도 동의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스템은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긍정적 반응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주목,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을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학교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약시스템과 학교 방문·학부모 상담 예약시스템, 자동차 운임 기준 여부 자동 정산프로그램 등 다수의 업무경감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해 왔다.

전국 공공기관 최초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등 현장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으로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성과가 교육부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학교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통공사, 청소년 안전 체험관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대구교통공사가 대구교육청 동강수련원과 손잡고 청소년 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교육청 동강수련원은 2014년 개원, 대구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간 2만명 정도 방문한다.

지하철-항공-지진 안전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대구교육청 직속기관이다.

지하철 안전체험관은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객실내부와 유사하게 조성돼 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철도에 관한 안

전수칙·비상시 대처 요령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대구교육청 동강수련원에 지하철 안전체험관 조성에 대한 자문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해 왔다.

이번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대구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도시철도 안전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장은 "지하철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안내 표지판, 자동방송 음원, 비상시 매뉴얼 등 자료를 제공, 많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민선 8기 고령군 이남철號, 확실한 변화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
진정한 '세계유산도시'로 도약
달빛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 제정...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 대도시권 배후
도시 기반 마련... '고령 철도시대' 서막
청년임대주택 준공 및 3대 무상
교육 실시... 미래세대 위한 정책
지역내총생산 실질증감률 1위
투자유치 1조 목전... 잠재력 확보

민선 8기 고령군 이남철號는 쉽지 않았다.
이 군수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운동화를 켜고 고령군을 누비고 다
니고 있다.
취임 초부터 젊은 고령을 지향하며 출발을 알린 이남철號는 고령군 변
화의 원동력이 됐다.
이 군수는 마라톤처럼 이어졌던 수많은 군민과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쉬 없이 달렸다.
민선 8기 절반을 둔 고령군정 2년을 돌아보자.

민선 8기 전반기 군정 주요성과

■문화관광

문화관광분야에 있어 민선 8기 고령군의 가장 큰 성과와 변화는 '지산
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꼽을 수 있다.
가야고분군 중 핵심유산으로 인정받은 지산동 고분군을 보유한 고령
군은 진정한 세계유산의 도시로 도약했으며, 세계유산과 야간관광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기획된 고령 대가야축제는 역대 최대 22만명이 방문하
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문화관광축
제', '3년 연속 경상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됐다.

■산업경제

대도시와 연결해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
에 어려움이 많았던 다산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마무리단계
에 접어들어 확산지구를 비롯한 공동주택 건설, 천년건축 시범마을 등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령역사 건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고령 철도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더불어, 한국중부발전과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MOU'를 체결
하는 등 9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면서 미래 성장동력
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GRDP 추계결과에서 '지역내총생산 실질 증감률 경
북도 내 1위, 1인당 총생산액 3위'를 기록하는 등 작지만 강한 도시경쟁
력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보였다.

■인구청년

청년임대주택 준공 및 고령청년 드루와라, 뮤즈하우스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및 문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일자리 연계·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
적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산모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과학체험관을 개소했으며, 창의 융복합 프로
그램 시행과 교육·급식·교육비 3대 무상교육을 정착시키며 지방소멸
과 저출생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농업

다산 좌향리 임대형 스마트팜, 고령군 드론센터 등을 준공하여 새로운
농업인을 지원하고, 미래농촌에 대비하고 있다.
농촌인력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조성해나가고 있다.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새마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에 있다.
더불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통해 우곡 만세한마당 및 개진 급전지구
은누리마당, 다산 도란도란 어울림센터를 건립해 주민수요에 맞는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 농촌정주여건을 향상시켰다.

■도시

고령군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하면서
도, 대가야역사공원과 지하주차장, 관광순환도로 정비 및 야간경관디
자인 개선, 군민체육관 및 우곡문화공원, 연조공원 맨발걷기 공간 조성
등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해 왔다.

민선 8기 하반기 군정 추진방향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고령으로의 변화, 청년희망도시

청년임대주택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천년건축 시범
마을, 청년농촌보급단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한편 다자녀가정 대상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하고, 청년 정착의
근간이 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특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
업,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연말 준공 예정인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을 유치해 더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공간 또한 꾸준히 조성 중으로, 고령청년 드루
와라 및 뮤즈하우스 활성화는 물론, 체류형 창작공간인 문화예술창작소
와 청년희망이음클러스터 등을 통해 청년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세계유산과 자연을 모두 보유한 글로벌 역사문화 힐링도시

세계유산의 도시로 거듭난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
리기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건립과 야간경관 조성, 세계
유산 축전 및 야행 등 세계유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및 문
화예술특화지구 조성으로 대가야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사문화도시
로서 품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휴식과 힐링, 자연친화적 관광선호 추세에 따라 다산 은행나무숲 일원
바래미 생태레저단지과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화전번 어복실
초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및 미디어아트
숲 조성 등으로 온종일 꽃과 빛으로 물드는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도시
로 도약하고자 한다.

■첨단 스마트 농촌으로의 대전환, 경쟁력 있는 미래농촌

국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에 대응해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화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이자 수출산업
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농업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임대형 스마트팜
을 확대 구축하고, 청년복합귀농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농업인력뱅크를 운영하고, 농
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조성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을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영농시
스템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산물 가공 종합처리장 및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및 농촌 테마상품의
특화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경쟁력 있는 6차산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 성장을 이끄는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대도시권 배후도시로 도약

대구 제2국가산단이 지정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군은 다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으며 도시개
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에 더해 월성일반산업단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대구 배후도시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달빛철도 역사 건립 추진과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도입, 대
가야아이스 IC 설치 및 다산-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은 고령군
의 도시집적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또한 계
속해서 추진해 나가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행정을 이어간다.
동고령 IC 물류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어차보전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
의 산업·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보금자리, 두터워진 사회안전망

저출생과 고령화, 취약계층 빈곤·고립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중인 고
령군은 대가야읍 신규 청사와 연계한 '대가야권역 거점형 돌봄교육센
터' 조성으로 돌봄·교육·문화 기능이 결합된 원스톱 완전돌봄 지원 공간
을 마련한다.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저소
득층 일자리를 창출, 확대해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또한 종합병원과 연계한 유기적 의료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마을주치의
사업과 같은 고령군만의 특색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군민 맞춤형 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산건강가속센터 건립과 읍면별 파크골프장 확대, 맨발걷
기 길 조성 등 생활체육·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군민의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군민의 참여와 동행으로 완성되는 미래지향적 군정

고령군은 군민과의 만남, 소통의 장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동행의 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가야읍 청사 건립 및 성산·쌍림면사무소 등 행정 인프라 개선을 통
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도시재생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편리하고, 한층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이다.

한편 지역의 힘을 키울 교육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
정,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및 군민독서실 이전 등을 추진하여 지방을 살
리는 교육혁신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한층 젊어진 고령의 힘을 키워 이전과는 완전히 달
라진 힘있는 고령의 새 시대를 만드는 초석이 돼 살기 좋은 고령을 후손
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이룰 것이라 장담했다. 배병백 기자



지산동 고분군 정경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월성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청년콘서트 6666



창의융합프로그램 개강



100대 가야금공연



불국사·석굴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

경주시는 지난 17일 불국사와 석굴암 사찰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위기 대비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을 했다. 교육은 경북도 소방기술교육센터 및 한국

지산기술협회와 함께 협업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사례와 영상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산사태 발생 전후 단계별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에 대한 교육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림연접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비상연락망 구축한다.

경주는 로컬문화 뿌리내린 로컬 특화도시...

로컬브랜드페어 2024 21일 개막 로컬브랜드 성장 지원 위해 마련



전국 최대 로컬브랜드 간 비즈니스 플랫폼인 '로컬 브랜드 페어 2024'가 오는 21~23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3층 행사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최근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자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티브 및 로컬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컬 x ESG'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컬브랜드의 역할을 논의한다. 전국의 로컬브랜드 80여개 및 150여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데 전시회를 중심으로 △로컬브랜드컨퍼런스 △헬로스테이지 △로컬브랜드어워즈 △테이스티 경주 △로컬브랜드나이트 △투자자 프로그램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로컬브랜드컨퍼런스는 지역 자원과 문화를 바탕으로 경주의 로컬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점을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의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으로 선정, 확대 개최된다. 3일간 50여명의 연사들과 함께 로컬브랜드와 정책, 투자, 커뮤니티 등 로컬과 ESG를 주제로 개최된다. 11명의 로컬분야 투자사를 초청해 네트워킹과 토크쇼와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로컬 비즈니스 대표자들이 로컬분야 투자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주요 참가자들과 참가기간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로컬브랜드나이트

프로그램은 주제별로 행사 1·2일차에 걸쳐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헬로스테이지는 신규 로컬브랜드 7개사의 비즈니스 모델 피칭과 로컬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자문을 통해 본인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용문으로 행사 1일차 오후에 펼쳐진다. 로컬브랜드어워즈는 투자, 지원조직, 학술, 로컬xESG, 올해의 로컬브랜드 등 다섯 가지 부문에 걸쳐 뛰어난 활약을 펼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행사 2일차 메인무대에서 시상식을 연다. 테이스티 경주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사전공모를 통해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경주 시내권에 있는 9곳의 파트너십이 선정됐다. 행사명칭을 소지하고 해당 상점을 방문하면 상품 할인 또는 무료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누리집(www.localbrandf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최근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로컬문화가 뿌리내린 로컬 특화도시"라며 "이번 로컬브랜드페어가 전국의 대표적인 로컬브랜드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엠이치, BELOCAL 등 3개 기관이 주최·주관한다.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 건설 박차

이규익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시민들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 살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 다한다



가족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안내했다. 이 국장은 선도동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 3월까지 증축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식사·영양관리, 기본돌봄·가사간병 등의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경로당 소파 설치사업은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아 2026년까지 지역 모든 경로당 633곳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을 현곡면에 추가로 설치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8월부터는 일시적인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읍면동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8대가 설치, 2025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7월 황남동행정복지센터, 12월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준공 시기를 각각 안내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은 "경주를 보다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성동시장 '2024 동행축제' 성료

지역 내 어린이들과 고객 함께 즐긴 장바구니 잔치

'어린이 경제체험' '성동시장 장바구니 경품대잔치'가 인기다. 경주 성동시장 상인회는 '2024 성동시장 동행축제'를 지난달 21~23일까지 3일간 성동시장에서 열었다. 행사는 어린이들과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경제체험'과 '성동시장 장바구니 경

품대잔치'를 진행했다. 어린이 경제체험은 성동시장 주요 통로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체험에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30여 명이 참여했다. 상인회 임원이 멘토(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함께 장을 보고 판매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제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성동시장 장바구니 경품대잔치는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서 경품추첨사를 했다. 행사장 내 1만원 이상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면 경품응모권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진행함과 동시에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진행자 퀴즈 및 게임) 및 공연(국악연주) 함께 이뤄졌다. 권로욱 성동시장 상인회장은 "어린이들에게 전통시장의 매력을 깨닫게 해주며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문하고 싶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시장의 많은 이용을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안정 위한 물가조사요원 교육 간담회

경주시가 물가모니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물가조사요원 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4일 경주YMCA 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원활한 물가조사를 위한 업무 교육과 친절 교육을 겸해 열렸다. 물가조사요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 서비스 요금과 주요 생필품의 가격변동사항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홍보하는 등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물가안정을 돕는 역할도 함

게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는 피서철 및 축제현장 바가지요금에 대비, 물가안정 중점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방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방안, 물가조사 시 예외사항 청취 등도 이뤄졌다.

유통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울릉태하리임오명각석문 6월 해양유산 선정

울릉태하리임오명각석문
경북문화재자료 제41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독도해양연구기지는 ‘울릉태하리임오명각석문’을 6월의 해양유산으로 선정했다.

‘울릉도태하리임오명각석문’은 울릉도 개척의 계기가 된 1882년 이규원 검찰사 일행의 울릉도 검찰 기간 중 새긴 각석문으로 울릉도 학포마을에 위치해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편집을 맡고 있는 ㈜위스아와 협업으로 지난 4월부터 매달 ‘이달의 울릉도(독도) 해양유산’을 선정한다.

해양과학을 바탕으로 한 울릉도(독도) 해양유산 홍보로 울릉도 및 부속섬 독도의 섬 가치와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울릉태하리임오명각석문은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412호로 지정됐다.

일본인의 울릉도 밀입산림 벌채 활동이 잦아지자 조선 조정은 울릉도 방어를 위해 울릉도 현황 조사단으로 이규원 검찰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1882년 6월 15일(음력 4월 30일) 학포를 통해 울릉도를 입도했다.

검찰사 일행은 울릉도 사동마을에 울릉도마저도 일본땅이라는 표주 발견, 나리분지 등 울릉도 개척마을 건의했다.

당시 조선은 1417년 이래 울릉도 거주민 쇠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규원 검찰사 일행은 울릉도 검찰기간 중 140여명의 조선인을 만났다.

이 중 약 115명이 배건조 및 미역채취 목적으로 울릉도에 건너온 거문도를 중심으로 한 흥양(현재의 여수·고흥)출신의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임진왜란 후 다수의 전라도인들이 울릉도에 계절적으로 건너왔다는 기록(다산정약용의 탐진어가 등)이 있기도 하다.

이규원은 1833년 강원도 금화군(현 철원군) 출생이다.

1851년(18)에 무과급제, 울릉도 검찰사(종3품) 임명(1881년), 제주목사 겸 참리사(1891년), 함경북

도 관찰사(1900년), 1901년 사망한 인물로,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규원은 청렴 결백의 인물 및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푼 관리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다. 학포마을회에서는 2023년 6월 15일, 제1회 학포개척역사문화제를 열고 있다.

울릉도 마을회에서는 최초로 6월 15일(이규원 검찰사 울릉도 입도일)을 학포 마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규원이 울릉도를 다녀간 6월은 기상청 울릉도 주변해역의 연간 풍랑특보 발효일수에 따르면, 연중 풍랑특보 발효일수가 가장 적은 달이다.

그러나, 6월은 또한 잦은 해무로 연중 가시거리

가 나빠지는 달이기에, 이규원 검찰사 일행은 아쉽게도 독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해 해저지명에는 이규원이라는 해저지명이 등재돼 있다. 울릉·독도는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로 둘러싸여 있다. 울릉·독도 주변에는 다양한 해산들과 해저용기부가 분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시(제2007-161호)를 통해 울릉도 서쪽 약 30km에 위치한(북위 37도 33분, 동경 130도 27분) 정상부 수심 892m의 해저용기부(이규원해저용기부(Lgyuwon Ridge))로 명명했다.

영덕 환경미화원들, 환경개선 봉사 구슬땀

영덕군 환경미화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병곡면에 있는 저장 강박 의식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

김민석 노동조합장을 비롯한 12명의 조합원은 수년째 집안과 마당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악취와 벌레가 이는 집을 청소했다.

차량 2대와 크레인 차량을 동원, 6톤 가량의 쓰레기를 모두 드러내고 수작업으로 분류해 처리했다.

남회동 병곡면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께서 혼자 힘으로 개선할 수 없는 환경을 환경미화원분들이 말끔히 해결해 주셔서 당사자는 물론 이웃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영덕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깨끗한 지역 환경 가꾸기 사업을 통해 행복지나 공원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영양군, 유통취약 사각지대 없앤다!

2024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 확대 지원사업 선정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이 ‘2024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재)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영세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

2024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사업은 농식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소·여성농 등 취약농업인에 체계적인 유통서

비스를 지원, 판로 확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한다.

영양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지원사업 오프라인형 판로 확대 유형으로 선정됐다.

500만원 이내의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상자, 포장지 등 농산물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받는다.

지원 사업으로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0종류의 친환경 소분 포장지에 4종류를 추가제작·운영한다.

소분 포장지의 종류를 다양하게 출하함에 대



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농가 소득 증가에 이바지한다. 권윤동 기자

제16회 청소년 우리진 축구대회 성료

울진군, 지역 청소년 스포츠 문화·예술 등 인재 성장 지원

‘제16회 청소년 우리진(珍)축구대회’가 막내렸다. 대회는 지난 15, 16일 이틀간 울진연호체육공원과 울진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울진군 주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울진지구협의회가 주관했다. 올해는 지역 고등부 6개팀, 중등부 4개팀, 초등부 4개팀, 여성 청소년 2개팀 등 총 16개팀 3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학교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 뜨거운 명승부를 펼쳤다. 이번



대회엔 사범경기로 여성 청소년 2팀이 참가,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이정수 기자



남정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영덕군 남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정서적 지원사업으로 지난 14일 취약계층 10명과 함께 울산 장생포 일원으로 행복한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울산 장생포 일대의 고래생태체험, 수족관 전시, 모노레일 탑승, 수국공원 관람 등을 평소 야외나들이나 여행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가구들과 함께 체험했다.



청송군,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청송군은 지난 14일 경북교육청 응암관에서 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지역에 맞는 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어깨동무 고향사랑기부

청도군 이서면은 지난 17일 청도군 이서면과 수성구 중동 두 기관 간 ‘어깨동무, 고향사랑기부금’ 각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병태 이서면장은 “지역 상생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올 여름, 특별한 즐거움

일상탈출 울릉도 여행

Have a Special Time in Ulleung Island

에메랄드 울릉도 울릉 The Emerald Island Ulleung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새마을지도자영천시협의회,
18일 감자 1500kg 기탁

새마을지도자영천시협의회는 18일 금호읍 덕성리 새마을농장에서 영천시새마을회 회원 50여 명과 최기문 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감자 150여 상자(1500kg)를 수확한 후 시청 전정에서 성품 기탁식을 실시했다.

영천시새마을회는 휴경지를 활용, 감자, 배추, 무 등을 경작해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이날 기탁한 감자도 지난 3월에 파종해 3개월 동안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려 정성껏 재배한 후 관내 10여 개 장애인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이승원 회장은 "이웃들에게 맛있는 감자를 나눌 수 있도록 바쁜 시간을 쪼개 적극 참여한 새마을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기탁한 감자를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 가족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나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새마을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침체된 경제 상황과 무더위로 마음과 몸이 지쳐 있을 이웃들이, 새마을 회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감자를 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하기자

의성군, 24년 세외수입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

의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024년 세외수입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지정정보개발원(KLID) 지방세외수입운영지원단 교육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 체납관리, 과태료/과징금관리 등에 대한 업무 설명과 실습으로 진행했다.

의성군의 세외수입은 2023년 결산 기준 256억으로 자체재원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나 각 부서별로 다양한 과목으로 부과되며,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숙련도 차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2월 13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시스템 안정화까지 일선에서 혼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공유재산, 과태료/과징금 등 주요 대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재성기자

영주시, 시민과 소통하는 '365 열린시장실' 운영

매월 운영 시정에 신속 반영 '시민중심 열린시장' 구현

영주시는 지난 17일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13명을 시장실로 초대해 '향토음식의 상품화 전략 및 세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365 열린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날 만남은 지역 전통음식 육성 발전에 힘쓰고 있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향토 음식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메밀묵밥, 태평초, 순흥기지떡, 풍기인삼 삼계탕 등 향토 음식의 우수성은 전 세계 어떤 음식에도 뒤쳐지지 않는다"는 지역 전통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담긴 박남서 영주시장의 말로 이날 소통은 시작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음식연구회 관정자 회장은 "향토음식 조리법이 체계화되지 않고 가전비법 식으로 구전돼 오고 있어 전수가 어렵다"며, "고유한 조리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표준 레시피 개발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인 부석태 콩을 활용한 맛된장, 사과 고추장 등 향토음식에 기본이 되는 다양한 장류 발전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불였다.

이외에도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필요성 △메뉴 홍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발굴 △향토음식점 서비스 및 위생 관리 △외국 관광객의 기호를 반영한 퓨전음식 개발 등 향토음식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소통을 주재한 박남서 시장은 "향토음식을 접한

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문화를 만끽하고 체험하는 것이다"며 "향토음식발전회 힘쓰시는 우리음식연구회에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지역 전통음식 육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30일에도 지역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를 시장실로 초대해 '저출산 시대의 보육 정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 매월 시민들을 초청해 '365 열린시장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소통 Run to you', '시민행복민원실' 등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시민중심의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성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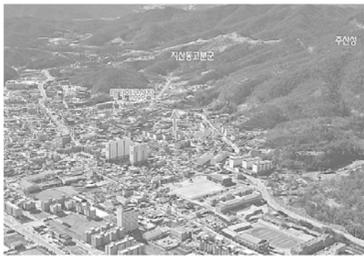
대가야 "공성" 1500년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

대가야 공성의 존재 보여 방어시설 발견 18일 밝혀

고령군에서 대가야공성터로 추정되는 방어시설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대가야 공성지 발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 중인 '추정 대가야공성지 I-1구역 정밀발굴조사'에서 대가야 시대에 축조된 공성의 북벽부 토성벽 일부와 해자 등 공성의 존재와 범위를 알려주는 방어 관련 시설이 발견돼, 오는 21일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2017년 대가야읍 연조리 594-4번지에서 토성과 해자로 추정되는 시설을 발굴한 이후, 2019년 '대가야공성지 발굴·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가야공성과 관련된 발굴조사를 수



차례 진행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 토축시설만 확인돼 아쉽게도 대가야공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2024년 3월부터 대가야읍 연조리 555-1번지 일원에서 조사 중인 '추정 대가야공성지 I-1구역 정밀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토축시설 아래에 대가야시대 토성벽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짐성토층이 일부 유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가야시대 해자도 함께 발견돼 대가야공성의 존재와 범위를 밝혀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가야 토성벽의 흔적과 해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가야공성의 위치와 범위 등의 궁금증을 일부나마 풀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발굴현장(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555-1번지 일원/고령군 유림회관(명일경로당) 맞은편)에서 개최하는 "추정 대가야공성지 I-1구역 정밀발굴조사 현장공개 설명회"에서 조사기관의 발굴 성과와 설명과 함께 출토유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배영백 기자

52년만에 성주가야산 법전리 신규탐방로

가천면, '법전리~칠불능선 (2.8Km)' 탐방로 개방

성주군은 지난해 5월 지정된 가야산국립공원 [법전리~칠불능선(2.8km)] 신규탐방로를 오는 24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전리 신규탐방로 개방은 1972년 10월 23일 가야산국립공원 지정(국립공원 제9호) 이후, 지난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고 1년여간 안전시설물, 목재교량, 목재계단,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52년만에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개방구간은 기촌코스인 수륜면 백운동에서 만물상, 상왕봉 코스와 가천면 법전리에서 수륜면 봉양리로 이어지는 가야산선비산수길 제2코스인 가야산 에움길과 연결되는 2.8km구간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성주가야산 종주코스'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신규탐방로 개방으로 52년간 숨겨졌던 가야산의 절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5만 성주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오

봉화군, 도내 양돈농장 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추진

봉화군은 지난 15일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도내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도축장 역학 관련 5개 농장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고 17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축산시설과 양돈농장은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안내하고 축협 공방단 및 군 방역차량을 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전화예찰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보, 방역수칙을 문자(SMS) 등을 할

용해 농장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유 중인 발판소독소 150개와 생석회 10톤, 소독약품 500리터를 긴급배부했다.

또한 군은 7월 31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과 하천에 인접한 ASF 발생 위험이 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돈농장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열과 식욕부진, 폐사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성기기자

랜시간 기다린 만큼 성주가야산 종주코스의 완성으로, 성주군민과 전국의 산악인들에게 '성주가야산 바람'이 불 것 을 기대한다.

또한 "법전리 신규탐방로 개방을 시작으로 법전리 일대를 향후 생태관광지역으로 변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 도재훈 기자



봉화군 가사돌봄지원사업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6가구 추가 모집

봉화군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가사돌봄지원사업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6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가사돌봄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타위기가정, 인산부를 대상으로 주 1회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송갑순 봉화군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이용자들이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성기기자

영주시, 여름 과일 '망고링' 7월 본격 출시

영주시가 중점 육성 중인 새로운 과일 '망고링'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망고링은 플러코트 중 심포니 품종을 노란색과 둥근 이미지를 떠올리게끔 영주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로 망고링만의 특별한 맛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난해 상표출원을 마쳤다.

시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망고링 포장 디자인과 홍보물도 제작했다. 포장 디자인은 '오늘은 새콤 내일은 달콤'이라는 홍보문구를 활용해 후속시킴 당도가 높아지는 과일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망고링은 영주시민의 우수한 재배기술로 품질을 높여 향이 부드럽고 진하며, 후숙 전에는 자두

의 새콤한 맛을, 후숙 후에는 살구의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A, 비타민C,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피부미용과 변비 등에 효능이 좋다.

현재 시에서는 30농가가 8.7ha 규모로 망고링을 재배 중으로 올해 10톤 이상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 시와 영주시플러코트발전연구회는 망고링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오는 7월 수확시기에 맞춰 온라인 방송 판매 및 수도권 관측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망고링이 기술 지원과 함께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해 시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키울 방침이다. 전성기기자

세계유산 도시

고령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